즉시 배포용: 2026 년 8 월 17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이민자 수십만 명의 임시 보호 상태를 종료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법

***Hochul** 주지사는 임시 보호 상태 종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표하고 국토안보부에 철회를 요청*

서신 사본 내용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Markwayne Mullin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이민자 수십만 명의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종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다시 표했습니다.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Mullin 장관 귀하

저는 Trump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이어 이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의 TPS 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무자비한 조치는 특히 최근 아이티인들에 대한 종료와 곧 있을 엘살바도르인들에 대한 종료 조치는 뉴욕주와 지방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백 명의 필수 인력의 고용을 중단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정부만이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전역의 민간 부문의 기업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노동 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구성원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뉴욕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료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아 우리의 고령자와 취약한 뉴욕 주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뉴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난,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TPS 신청 지원과 변호 등으로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은 계속 TPS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지에 상관 없이
가족 수천 명이 잔인하게 이 나라에서 쫓겨나 자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백악관의 결정은 무모하고 비인도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TPS 대상국의 극심한 불안과 폭력, 위기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TPS 를 완전히 복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에 아주 큰 기여를 해왔고, 이들은 우리 주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TPS 는 과거 사람들이 위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행정부도 이들을 보호할 분명한 법적 방법이 없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들을 위험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토록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이자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 존엄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 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
이 그룹에서 탈퇴하고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려면
press.release+unsubscribe@exec.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